

투데이 칼럼

봄철 안전한 산행 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반강제적인 자가격리를 하며 오랫동안 실내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시민들은 답답함,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Corona Blue)'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혼산(혼자서 하는 산행)' 등이 대체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또한 자연적인 밀집을 피하고, 2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야외에서의 활동은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봄 날씨의 산행은 오히려 감기에 걸리기 쉬워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등산로 곳곳에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어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봄철 등산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소빙제난 본부는 등산도를 벗어난 무리한 산행이 실족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부른다고 설명하고, 안전한 산행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1. 산설 및 낙엽 밑의 빙판을 주의한다
봄이라고 해도 산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으므로 아직 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빙판이 의심되는 곳은 아이젠을 착용하고, 해지기 전에 하산한다
등산로의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불편하더라도 아이젠을 착용하



염정길

고창소방서119구조대장

는 것이 좋다. 아이젠 착용 시 빈번히 발생하는 실족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협곡을 지날 때는 낙석 및 낙빙에 주의한다
봄철에는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바위가 약해져서 1년 중 낙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등산 중 바위에 함부로 손을 짚거나 디디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발을 내딛거나 손으로 잡기 전에 흔들리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4. 사고를 대비해 주변 위치를 숙지한다. ex) OO봉, OO비위, 119 신호안 내판
빠른 구조를 위해 내 위치를 꼭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내 위치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등산로 중간중간 세워져 있는 기둥에 국가지점번호가 적혀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산, 들만 등에 설치해 기관마다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이 번호를 알이두

고 신고한다면 구조대의 도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로에는 약 500m 간격으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목적 위치 표지판에는 현 위치의 고유 번호가 있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각 국립공원 사무소와 가까운 119의 연락처가 있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도 산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처럼 구조요청 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면 구조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5. 스마트폰을 이용한 GPS 활용
구조시스템은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으로 위치가 상황실에 표시되는데, 이는 최대 1~2km까지 오차가 발생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소를 확인해 정확히 찾아가 쉽지만, 해산이나 산악사고 시에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조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과다

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 GPS 기능이다. 신고자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종 지도 앱을 이용해 GPS 위치정보를 알려주거나,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119신고' 앱을 설치 후 간단한 조작으로 현재 GPS 위치정보를 119 상황실로 전송할 수 있다.

GPS 위치정보를 입수한 구조대는 최단 시간 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 현장에 도착할 수 있고, 구조 임무 수행 간 신고자와의 거리 및 도착 예정 시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조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6. 여분의 옷을 준비하여 조난 및 기상변화에 대비한다
산의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능선이나 산 정상에서는 바람이 불면 초속 1m당 체감기온이 1.6도씩 낮아진데, 봄철에는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일교차와 더불어 큰 주의를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땀이 잘 마르는 소재의 등산복을 착용하고, 옷이 젖으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체온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교차를 고려해 의투를 챙기는 것이 권장된다.

이 외에도 정해진 등산로를 따라 등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해 응급상비약, 구조요청용 호루라기, 손전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사설

코로나 사태 연대 의식으로 극복하자

거의 매일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사실을 쓰고 있다. 어떤 아들에게는 이런 반복이 지루할 터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코로나 19가 우선순위의 관심사이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이달 15일이 총선이지만 그보다 코로나 사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연대 정신으로 극복해야겠다. 유럽의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을 반면 교사의 사례로 보아야 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동안 연대 정신이 부족했다. 사재기 소동을 보인 것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꺼야 한다는 보건 당국의 말을 먹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을 환자 취급을 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오만할 정도로 아시아의 국가들을 깔보고 회화하며 큰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현재 신규 환자와 사망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일 나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발병 국가들 중에 모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긴장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때 일반 시민들은 연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연대 정신이라니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을 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아니다. 외국에서 온 이들은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겨 일탈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정부와 보건 당국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짓거리다.

코로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주의에 바탕한 제멋대로의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극복에는 연대 정신이 큰 힘을 발휘한다. 당국의 요구대로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씻고, 부득이 하게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꺼야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연대 정신 발휘로 코로나 19를 기필코 극복해야겠다.

이루지 못한 지역 현안 다시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다시 주목해야겠다. 덕결이를 하더라도 주요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 19 때문에 경황이 없고 총선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테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전북도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해서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발전 현안의 추진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을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안에 정부 부처의 실력자들이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군산은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나 군산 현 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가 힘들어하면 미련을 속히 접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에 대한 짝사랑을 접어치우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작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착했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발전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시군의 단체장들은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마침내 고향으로”



중국 지린성에서 우한으로 파견 나뉘던 의료진이 8일(현지시간)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 텐허 국제공항에서 배웅 나온 우한 관계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우한의 봉쇄가 11주 만에 해제된 지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사람이 기차와 비행기를 통해 우한을 떠났다고 전했다.

주민위해 공연하는 체코 거리 음악가들



7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두건을 쓴 거리 음악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에 머무는 주민들을 위해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체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87명, 사망은 67명으로 집계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